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심상치 않다

노영한

(본회 전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 정에는 약하다. 북한 동포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심각한 상태라 그들이 체면 불구하고 일본에 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같은 동포인데 우린들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일본보다 먼저 급히 쌀을 보냈다. 더 필요하면 수입을 해서라도 더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쌀을 신고간 수송선에 대한 인공기 계양 및 선원의 사진 촬영에 따른 선박 억류 등으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가 큰 질책을 받았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우선 통증만을 없애는 단회적 처방이라는 질책이었다.

우리도 지난해 쌀만 수입하지 않았지 사료용 곡물을 853만t이나 수입하였고, 총 식량 자급률이 29% 정도로 식량안보에 위험 신호가 켜진지 이미 오래이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어느 정도 식량을 자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지경에 이를 뿐이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이 심상치 않다. 사료곡물의 주종을 이루는 옥수수가 파종기 홍수와 그후 폭염 등으로 지난 해에 비해 약 2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년부터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육류의 유통기간 연장 및 자율화 조치와 선 통관, 후 검역 제도의 도입 발표 등 심상치 않은 조짐에 이어 대부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우리나라가 왜 생산비가 높은 지 원인 분석이 생략된 채 수립되어진 것으로 보여 양축가들이 불안하였다. 이미 녹기 시작한 얼음판을 계속 달려가다 모두 익사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육돈 한 마리 생산하는데 우리가 122,900원(90kg 기준)인데 비하여 미국은 64,800원이다. 우리는 생산비중 사료비가 64,900원(미국 39,700원), 인건비 20,300원(미국 7,600원)으로 다른 항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하여 사료비,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의 사료가격이 kg당 약 230원인데 비하여 미국은 118원 정도로 우리의 절반 가격 정도이다. 물론 우리는 운송비,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 등으로 사료값이 미국보다는 비쌀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배합사료 가격의 생산비가 왜 높은지, 더

지금까지 우리는
 배합사료 가격의 생산비가 왜 높은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은 생략되어 왔다. 이제 사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다 함께 익사할
 수 밖에 없도록 국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사료산업의 문제를 사료가격 인상이라는 몰핀
 투약으로 처리해 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하며, 정부는 자가배합 등 양축가들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은 지금까지 생략되어 왔다. 물론 사료정책이 사료공장의 위치에서 수립되어 왔으므로 축산업 전체를 보는 시야가 부족했고 개혁은 엄두를 못낸 것이다.

이제 사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다 함께 익사할 수 밖에 없도록 국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일본, 대만 등이 이미 몰류비용과 사료공장의 영업, 운영관리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가 배합사료의 비중을 높여가고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료공장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으나, 시행령은 연말에나 만들어진다. 가능하면 자가배합을 못하도록 하려는 인상을 주는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찾아온 환자에게 몰핀을 투약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돌팔이 의사를 비난한다. 그러나 그가 몰핀을 투약한 것을 모를 때는 그를 명의라고 칭찬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료산업의 문제는 사료가격 인상이라는 몰핀 투약으로 처리해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하며, 이미 몰핀 중독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원치 않는 것인지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사료공장 중심에서 양축가 중심으로, 양축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에 약한 민족이라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는 정신이 최고의 선(善)으로 착각하기 쉽다. 원료사료를 일괄 구입해서 비슷한 가격에 공급하는 획일주의에 잘 적응해 왔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 고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며,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고, 양축가들도 누가 고쳐 주기를 바라는 나약한 사람으로 되어가 축산업은 서서히 붕괴되어 간다.

자가배합과 배합사료공장이 국내에서 경쟁하고, 축산농가는 수입축산물과 질과 가격에서 경쟁하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양축가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를 현실에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근본 원인을 해결치 않고 아이가 울때 덮어놓고 사탕만 주어서는 자주, 자조, 자립의 덴마크, 화란과 같은 축산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